

디스플레이 기업 수출 확대 위해 무역금융 지원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 기업 대상, 보험료·신용조사 수수료 우대
-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역금융 관련 업계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책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1.24.(월)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을 개최하였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4년 211억불 수출을 기록하며 정보통신산업(ICT) 총 수출액*(반도체 제외)의 2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통상 리스크, 해외 수요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24년 총 2,350억불(반도체 1,421억, 디스플레이 211억, 컴퓨터·주변기기 144억 등)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업 특성에 맞는 우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기업들은 보험료율 인하(1%→0.7%), 보증한도 확대(150%), 해외 신규 바이어 개척시 신용조사 수수료 할인(50%),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는다.

이어진 디스플레이 기업 간담회에서는 디스플레이 수출 및 투자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무역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협약식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하며, “기업들이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디스플레이가전팀	책임자	팀 장	유재호 (044-203-4255)
		담당자	사무관	안찬종 (044-203-4258)



참고

무역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5.11.24.(월) 11:30~12:50/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Apex룸

- 무역금융 지원 업무 협약식 (11:40~11:50, 10분)
- 업계 간담회 (11:50~12:50, 60분)

□ 참석자

- 정부(1) : 산업통상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
- 기관(1) :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 업계(8) :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에이치앤이루자, 엘엠에스, 엠케이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승우 부회장
- 전문가(1) : 산업연구원

□ 상세일정(안)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1:30~11:31 01'	· 개회	
11:31~11:40 09'	· 모두 발언	산업부·무보·협회
11:40~11:50 10'	· 협약서 서명	무보·협회
11:50~12:45 55'	· 디스플레이 수출·투자 간담회	전체
12:45~12:50 05'	· 마무리	